

내란에 휘청이는 경제...환율 1437원까지 급등

크리스마스·연말 특수 실종 유통업계·음식점 등 매출 하락 환율 하루 새 17.8원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 여당의 투표 불참에 따른 탄핵실패 등으로 정치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경제 불안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원화 가치 급락으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주가는 올 들어 가장 낮게 떨어지는 등 정치 여파가 고스란히 경제 지표에 옮겨붙는 형국이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크리스마스·연말 특수도 사라지면서 유통업계, 소규모 점포, 음식점 등에 이르기까지 매출 하락에 울상을 짓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원·달러 환율은 탄핵 불발 등 정치 리스크 확대 여파로 1430원대까지 올라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7.8원 오른 1437원을 나타냈다. 주간 기준으로 이날 종가는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증시도 장중 연저점을 찍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360.18까지 떨어지던 11월 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점에 머물기도 했다. 외국인은 모처럼 1000억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무려 8899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이날 국고채 금리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1bp(1bp=0.01%포인트) 내린 2.579%에 장을 마치면서 다시 2.5%대로 내려왔다. 10년물 금리는 2.677%로 6.7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4bp, 3.5bp 하락해 연 2.579%, 연 2.635%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583%로 6.4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7.5bp, 7.0bp 하락해 연 2.486%, 연 2.414%를 기록했다.

서민 경제도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연말·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와 정치 혼란이 주요 이유로 등장하면서 송년회, 모임 등을 취소·또는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 가장 먼저 음식점들이 타격을 입고 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내린 2,360.58,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4.32포인트(5.19%) 내린 627.01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다.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계를 찾는 발걸음도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 하락을 우려해야 할 실정이다.

광주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선물은 사거나 연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기 하강 국면에서 모

처럼 맞은 연말 특수마저 정치적인 이슈에 막히다 보니 업계 관계자들도 허탈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연합뉴스

尹 권한 범위 논란 지속...군 통수권 등 그대로 유지

2선 후퇴는 선언적 의미...권한 행사해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어 논란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지난 7일 사실상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상 존재하지 않는 선언적 의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한다. 공무원 임면, 조약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윤 대통령이 거취나 국정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중심 정부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인 대통령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헌법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방법은 탄핵 또는 하야"라며 "모든 것을 여당과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수사이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도 제한할 방법이 전혀 없다. 행정장관 면직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사권 등을 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며 직을 유지하는 것에 법적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볼지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일단 헌법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한 로스쿨 교수는 "궐위는 파면, 사망, 하야(자진사퇴)로 그 사례가 명확하지만, 대통령의 '사고'는 직은 있으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서 "헌법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로 보는 게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계엄설... '설마'가 '현실' 됐다

국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까지

야당이 3개월여 전부터 제기해 온 '윤석열 정부 계엄설'이 '설마'에서 '현실'이 됐다.

국민도 믿지 않고, 대통령실도 '괴담'이라며 일축했던 '계엄령 선포'가 지난 3일 현실이 된 것이다.

9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9일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을 준비 중인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계엄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솔직히 저는 (계엄 선포 시)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후 3개월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것도 김 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이탈 표를 막기 위해 재표결 시 투표에 불참해 '집단 기권'을 할 것이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그런 편법을 어떤 목적을 위해 동원할 경우 국민들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한 대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는 투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설마'를 '현실'로 만들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탄핵 촉구 집회에 여성 많더라" 박구용 전남대 교수 발언 파장

논란 커지자 사과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2030 여자분들이 많이 나온다"며 남성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말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 8일 방송된 팟캐스트 '매블쇼'에서 "20대, 30대 남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매블쇼"는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점점 늘고 있다. 다음 주엔 많은 대학이 기말고사가 끝난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나올 것 같다"며 시민들의 집회 참여 소식을 전했다.

박 교수는 "현장에 가보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많아서 놀랐다"며 "20대, 30대 남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 여자분들이 집회에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박 교수에게 "철학과 교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의를 줬지만 박 교수는 "얼마나 철학적이냐"며 웃었다.

박 교수의 발언에 여론은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양 성별에게 교육적인, 저급한,

시대를 착오한 발언이다. 시대가 바뀐 지 언제인데 아직도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 "2030 여성들의 참가를 2030 남성들을 오게 하기 위한 미끼쯤으로 말하지 말라. 2024년도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을 뱉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라", "거리로 나간 시민을 모욕하지 말라"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방송은 9일 오전 11시 기준 조회수 270만회를 넘었다. 논란이 커지자 매블쇼는 영상에서 박 교수의 해당 발언을 편집했다.

박 교수는 해당 영상에 댓글을 통해 "방송에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2030 남성들이 집회 현장에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깨어있는 여성들을 쫓아서라도 시위 현장에 나타나길 바란다" 내용의 사르카즘을 던진 것이었는데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물의 빛은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시위를 축제의 장으로 바꿔주신 용기 있는 여성분들께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